

광주도시공사 시민체감 도시재생·주거복지로 삶의 변화 선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ESG경영 도입·주거환경 개선사업·공동체 활성화 호평
누구나 집 등 청년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제공에 집중

광주도시공사가 누구나 행복한 시민체감형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확산 정책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으로 낙후한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통합공공 임대주택과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을 통해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도 높이고 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을 도입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오픈한 광주주거복지포털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날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제17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냈다.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주거·에너지 복지 실현=광주도시공사는 상무지구, 광주전남혁신도시, 진곡산업단지 등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재생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민의 주거복지를 높인 점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도시공사는 또 녹색건축물 확산을 통한 주거·에너지 복지 실현을 목표로 15년 이상된 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전개해 '기후 위기 극복'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에도 이름을 올렸다. 공사는 지난해에만 광산구에 소재한 우산빛여울채 650세대에 이어 올해 서구 쌍촌빛여울채 250세대, 금호빛여울채 400세대 등 노후영구임대주택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고효율 및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 공사는 또 2024년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2450세대(노후영구임대 3500세대 중 70%)의 그린 리모델링사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시민 주거복지 컨트롤타워로 '우뚝' =광주도시공사는 전국 최초로 '시민 주거복지 컨트롤 타워'를 맡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는 2021년 광주시와 협업을 통한 종합주거복지센터와 광주주거복지포털을 오픈하고, 주거 문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장구역할, 주거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가진단을 통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은 본인

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화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안내하는 등 주거복지 통합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49세대를 직접 발굴해 새로운 집으로 임주를 도왔고, 주거취약계층 아이들이 거주하는 세대를 찾아내 도배, 가구 교체 등 학습환경 업그레이드 사업 등을 전개했다.

도시공사의 또 다른 대표 주거복지 우수 사례는 노후영구임대주택 공실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청년활동가에게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빈집과 청년의 달콤한 동거' 프로젝트다.

우산 빛여울채는 청년임주 50세대가 입주해 마을에 활력을 더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2020년 행안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성과 경진대회 최우수상, 제6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상, 제16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엔 퇴소하는 만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첫 보금자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뒤 분양·내집마련 기회 제공= '누구나집'은 품질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 가격으로 임대 의무기간(10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누구나집'은 남구 에너지밸리 내에 총 3만6313㎡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839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2024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증진으로, 시민의 주거생활 여건 향상은 물론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대표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누구나 평생 지낼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자원봉사센터·ESG코리아, 사회공헌·자원봉사활동 업무협약



교통·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 협력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최근 광주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ESG코리아광주전남지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양 기관은 앞으로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 자

원봉사단체 등과 함께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연대협력으로 기후위기, 돌봄, 교육, 교통문제,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 골목상권살리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및 나눔 문화 조성사업 추진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정보교류, 프로그램 개발, 공동사업 등을 통한 상호협력 ▲ESG 및 사회공헌관련 단체, 기업

봉사단체의체, 네트워크 등 적극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주자원봉사센터 임이연 센터장은 "ESG코리아 광주전남지부와 기업,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지역의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공헌과 자원봉사활동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소방,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

10~31일 접수...우수작 15점 시상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방청 주관으로 제47회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전은 1975년 처음 시작됐으며,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가 후원한다.

국민 누구나 표어·포스터·사진 3개 분야 중 1개 작품만 응모를 할 수 있으며, 화재예방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 소방안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10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한국소방

방송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 소방청은 1차 내·외부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수상 후보자에 대해 온라인 공개 검증을 통한 2차 심사 후 9월30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각 분야별 우수작품 15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상, 한국소방안전원장상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포함해 연중 전국에 배포, 전시, 온라인 배포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소방안전본부 이남수 방호예방과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각종 재난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당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신체에 접촉하는 시설이다.

물놀이 시설의 운영자는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수질기준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전류염소(염소소독 시)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장애인 지하철 이용 안내서 제작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교통약자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지체장애인을 위한 광주지하철 이용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우대권 및 무임교통카드 이용방법 ▲역사별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의 상세 위치 안내 ▲역사 근처 장애인 이용 편의 시설 안내 ▲전동휠체어 충전소 및 장애인 전용 주차장 안내 등 지체장애인 승객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담았다.

이번 안내서 제작에는 사단법인 광주지체장애인협회가 참여해 지체장애인 승객의 눈높이에서 제작했으며,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배포 및 역사 비치 등을 통해 실제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